

[심층] >> 4면  
가족돌봄청년제도의 현실

[특별기획] >> 6-7면  
노동의 가치, 기자들이 직접 알아보다

[사회문화] >> 8면  
불법 웹툰 생태계, 해결을 위해선...

[학술] >> 9면  
재판소원제도 도입, 예상되는 변화는?

## 2026 우리대학을 이끌어나갈 제60대 총학생회장단 '선명'을 만나다



지난달 제60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재선거가 진행된 결과 재선거운동본부 '선명'이 당선 됐다. 외대학보는 이에 발맞춰 김하은(LD 23) 총학생회장과 한수연(중국·중외통 23)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우리대학의 내일을 비추 계획을 들어봤다.

▶3면에서 계속

이나연 기자 12naeyeon@hufs.ac.kr

### 우리대학 폴란드학과-국립합창단, 교육·공연 연계 문화교류 협력

우리대학 폴란드학과와 국립합창단은 학생들의 △문화△언어△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과 공연 예술을 연계한 문화교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 교육과 실제 공연 현장을 연계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의 일환으로 지난달 17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국립합창단 기획공연 '폴란드 합창음악의 향연'이 개최됐다. 공연에는 다리우쉬 짐니츠키(Dariusz Zimnicki) 폴란드 쇼팽 국립음악대학교 교수이자 합창지휘학과 학과장이 객원 지휘자로 참여했으며 △교수진△국내 거주 폴란드 교민들△바르토티시 비시니에프스키(Bartosz Wiśniewski) 주한 폴란드 대사 부부△우리대학 폴란드학과 학생 70여 명이 참석했

다. 이날 무대에서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폴란드 성가곡 10곡이 연주됐다. 다양한 시대의 합창음악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폴란드 음악의 전통과 정서를 조명했다.

민인기 국립합창단 단장은 "국립합창단에게도 폴란드어로 노래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다"라며 "학생들이 합창곡을 통해 폴란드의 음악적 정서를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최성은 우리대학 폴란드학과 학과장은 "국립합창단이 폴란드어로 무대를 선보인 점이 인상적이었다"라며 "학생들에게도 전공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밝혔다.

정일성 기자 12ilseong@hufs.ac.kr

### 우리대학, 교육부 '2026 대학 AI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우리대학 교육혁신원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2026년 대학 AI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우리대학은 2년간 연 3억 원씩 총 6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해당 사업은 AI 대전환 시대에 △대학생의 기본적인 AI 소양과 활용 역량 강화△대학 내 AI 교육 기반의 체계적 확산 추진△AI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우리대학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수자 AI 역량 강화△우수 교육모델 공유 및 확산△AI 기본교육 전담기구 구축△AI 기본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AI 기초역량 함양과 더불어 대학 차원의 지속가능한 AI 교육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우리대학은 인문계열 중심대학으로서 축적해 온 언어

및 인문학 기반 위에 다국어 및 글로벌 데이터 이해와 AI 기반 국제문제 해결 역량을 결합한 'Breadth × Depth AI 교육모델'을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기본교육과정△AI 기초교과목△AI 융합교과목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총장 직속 AI교육혁신사업단도 신설해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사훈 우리대학 교육혁신원장은 "우리대학은 언어 및 인문학 전통에 데이터 기반 역량을 결합한 '글로벌 지식 혁신 허브 대학'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교육부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과 인문계 중심 대학으로서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정일성 기자 12ilseong@hufs.ac.kr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 바나나맛우유

똥같은까  
다들까?



#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화재 발생... “보조배터리 충전 중 폭발”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경 우리대학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여자 기숙사 B동에서 보조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에 따르면 충전 중이던 보조배터리가 방 안에서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학생들이 직접 소화기로 진화해 큰 불로 번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재 연기가 올라오며 많은 학생들이 연기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

이번 화재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글캠 기숙사 흡스돔(HUFS Dom)의 화재 경보 알람 체계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졌다. 화재 당시 3층과 4층에서만 화재 경보가 울렸고 고층인 7층과 8층에선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흡스돔 측에서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상황 및 대피에 관한 별다른 안내 방송 또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B동 8층에 거주 중인 재학생 A 씨는 “당시 화재 경보를 듣지 못했고 예비타이머 게시물을 보고 나서야 화재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계단으로 대피했다”라고 전하며 기숙사 내 화재 경보 알람 체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흡스돔 측은 “현재 기숙사 내 화재 경보시스템은 소방법에 따라 소방 점검업체를 통해 한두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점검 중이며 지적 사항 및 권고 사항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화재 사건 당시 고층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B동은 우선 경보 방식을 채택하게 돼 있다”라고 답했다. 우선 경보 방식이란 화재 발생 지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층을 기준으로 2-3개 층만 화재 경보가 울리는 소방 안전 방식이다. 화재가 저층에서 발생했으므로 우선 경보 대상인 저층만 화재 경보가 울렸고 화재 발생 지점과 먼 고층은 경보가 울리지 않는 것이 B동 화재 경보 시스템의 정상 작동 방식이라는 것이다.

화재 사건 이후 지난달 30일 흡스돔은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보조배터리 과열 화재 관련 안전 수칙을 배포하고 이를 기숙사 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흡스돔이 배포한 안전 수칙은 △기숙사에서 실시하는 소화기 사용법 등 화재 예방 교육 필히 이수△대용량 배터리 실내 반입 금지△부품·발열 등 이상 발생 시 즉시 폐기△취침 또는 부재

중 충전 금지 및 완충 시 즉시 분리△KC 인증 정품 보조배터리 및 충전기 사용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우리대학 재학생 B 씨는 “해당 안전 수칙이 형식적이어서 더 실용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화재 또한 정품 보조배터리 충전을 시작한지 한 시간가량 뒤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두고 B 씨는 “기숙사에서 배포한 안전 수칙이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흡스돔은 “매해 8월 15일에 전기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전기 안전 점검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장은솔 기자 12eunsol@hufs.ac.kr

# 우리대학-SIONIC AI, 동남아 특화 AI 모델 개발 위한 산학협력 MOU 체결

우리대학은 지난달 27일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기업용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 솔루션 기업 사이오닉에이아이(이하 SIONIC AI)와 AI 기술 개발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 정교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현지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특수의 국어에 대한 우리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과 산업 현장의 AI 도입을 지원해 온 SIONIC AI의 생성형 AI 기술이 연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연구 및 학술 프로젝트 추진△교육 및 연구 관련 지식·지원·데이터 교류 확대△인턴십·워크숍·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같은 학생 참여형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실질적인 협력 성과 창출에 나선다.

고석현 SIONIC AI 대표는 “AI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함께 필요하다”라며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보유한 특수외국어 전문성과 SIONIC AI의 AI 기술을 결합해 동남아 시장에 적합한 AI 모델과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박정식 우리대학 AI융합대학 학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AI융합대학은 △금융△사회과학△언어 등 다양한 도메인 지식을 AI 기술과 융합하는 교육과 연구를 통해 ‘AI+X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단과대학이다”라며 “△AI데이터△Finance&AI

△Language&AI△Social Science&AI 등 네 개의 융합 학부의 역량을 SIONIC AI의 AI 기술과 결합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종진 우리대학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학장은 “아시아언어문화대학은 △말레이·인도네시아△몽골△베트남△아랍 △이란△인도△태국△튀르키예 등 전략 지역 언어를 아우르는 단과 대학이다”라며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특수외국어 지식과 데이터가 AI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 인턴십과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협력이 활발히 이뤄질 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임소라 우리대학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원장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언어 및 문화 교육 확장△데이터 기반 평가△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향후 특수외국어 교육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 접근성과 학습의 질을 혁신하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은솔 기자 12eunsol@hufs.ac.kr

# 우리대학, 박준용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초청 ‘2026 HUFS특강’ 개최



우리대학은 지난달 29일 미네르바컴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박준용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이하 박 전 대사)를 초청해 ‘2026 HUFS특강’을 개최했다. HUFS특강은 김덕술(아시아·일본 81) 우리대학 총동문회장이 후원하고 HUFS특강 특별운영위원회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가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국제통상△인문학△외교 등 우리대학의 전통적 강점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의제를 접목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재학생△졸업생△지역 청년들에게 인문학적 소양과 진로 역량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단순한 전공 지식을 넘어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글로벌 사회가 요구하는 통합적 사고

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해 참가자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특강의 연사로 나선 박 전 대사는 ‘열망과 난관의 중동 교차로: 중단 없는 전진, 2030’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과거 대사 재임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의 △문화△정치△종교적 특성을 설명하고 글로벌 환경에서 요구되는 외교적 소양과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해 조언했다.

박 전 대사는 지난 1987년 외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다양한 외교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중동 및 국제외교 전문가이다. 박 전 대사는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주중대한민국대사관△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우리대학 국제지대대학원 특임강의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리대학은 HUFS특강을 통해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초청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솔 기자 12eunsol@hufs.ac.kr

# 우리대학, 홍영희 NC QA 센터장 초청 ‘2026 HUFS특강’ 개최

우리대학은 지난달 30일 글로벌캠퍼스 국제세미나실에서 홍영희 NC QA 센터장(이하 홍 센터장)을 초청해 ‘2026 HUFS특강’을 개최했다. 김덕술(아시아·일본 81) 우리대학 총동문회장이 후원하고 HUFS특강 특별운영위원회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가 공동 기획한 이번 특강은 △국제통상△외교△인문학 등 우리대학의 전통적 강점에 인공지능(이하 AI) 및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 의제를 접목했다. 이를 통해 △재학생△졸업생△지역 청년들에게 인문학적 소양과 진로 역량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 강연 프로그램이다.

홍 센터장은 지난 2004년부터 엔씨소프트에서 게임QA 팀장 및 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NC QA에서 QA센터장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맡아 게임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날 홍 센터장은 ‘게임 QA 그리고 AI시대를 맞이하는 게임 업계의 현황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강

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게임 개발 전 과정에서 품질보증이 수행하는 역할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소개했으며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도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임을 강조했다.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은 게임 산업 현장에서 QA가 수행하는 역할과 중요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가 학생 A 씨는 “게임 개발 과정에서 QA가 단순 오류 검수를 넘어 사용자 경험과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실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일성 기자 12iseong@hufs.ac.kr

# 2026 우리대학을 이끌어 나갈 제60대 총학생회장단 '선명'을 만나다

지난달 7일부터 8일까지 치러진 제60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설캠 총학) 재선거에서 선거 운동본부 '선명'이 당선됐다. 우리대학의 내일을 선명하게 비추 '선명'의 활약을 향해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금 외대학

보가 김하은(LD 23) 총학생회장과 한수연(중국·중외통 23)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Q1. 제60대 설캠 총학 재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지금껏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학생 사회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미해결 과제들을 가시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변혁을 이번 설캠 총학 재선거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목표를 기반해 우리가 비추 우리대학의 내일 '선명'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불투명했던 문제들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 Q2.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만큼 상반기 '퀸쿠아트리아(QUINQUATRIA)'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퀸쿠아트리아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요?

재선거 일정으로 인해 상반기 퀸쿠아트리아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선 직후부터 중앙집행위원회 내부 체계와 유사한 축제 운영 체계를 도입해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연 계획△무대 준비△부스 모집△일정△프로그램 기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캠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공약으로 이번 퀸쿠아트리아를 내세운 만큼 지난주 진행됐던 아티스트 수요 조사와 함께 학우분들의 참여와 많은 기대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 Q3. 사전 수강 신청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과목 수요 조사가 한 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증원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선명'이 내세운 공약 중 '전공 강의 개설 수요 기반 제도화'가 이전 제도와 어떤 차별점이 있으며 이전 제도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실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도입된 사전 수강 신청 제도는 학우들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보겠다는 학교 측의 의지를 담은 중요한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우가 지적한 것과 같이 실제 강의 개설이나 증원으로 이어졌는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공 강의 개설 기반 제도화는 해당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우들의 수요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이 공약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때 강의 개설과 증원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무처△단과대학△학부·학과△학사종합지원센터가 증원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현실을 반영한 개설 기준이 마련된다면 공급과 수요를 원활하게 반영한 강의 개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Q4. 학우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성적 평가 방식△재수강 제도△학점 포기 제도 합리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각 제도와 관련해서 학교 측에 제안할 가이드라인과 해당 공약 실현을 위한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해당 공약들은 학우들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적 평가 방식은 A 비율을 40%까지 B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상



대 평가가 적용되는 일반 강의의 경우에 △소규모 실습형 강의△외국어 강의△전공 심화 과목에 대한 절대평가 적용 기준 완화도 추가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재수강 제도는 기존 C+ 이하부터만 가능했던 재수강 가능 하한선과 최대 취득 가능 상한선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학점 포기 제도 역시 대상 학년과 가능 학점 수 증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관련 사항들은 교육정책국에서 교무처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며 의견서 작성 이후 빠르면 이번 학기에서 늦으면 다음 학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Q5. 학식 정상화 및 개선을 위해 인문관 김밥과 교수회관 석식의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답변에 앞서 폐지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과거 높은 업무 강도로 교직원분들의 잦은 퇴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문관 업무 연속성 부족과 인건비 문제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현재 두 차례의 등록금 인상이 이뤄진 만큼 관련 부서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식중독 관련 안전 검증을 담당 구청에서 진행해야 해 당장 도입되는 어려움이 존재할 것 같으나 다음 학기부터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 Q6. 등록금 운영 투명화를 위해 제13대 총장 집행부에 '재정 비전 2030'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한 등록금 운영을 위해 해당 플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핵심 정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부터 정부의 등록금 인상 규제가 완화되며 2년 연속 우리대학의 등록금이 인상되고 있기에 관련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록금 인상액이 어떠한 우선순위에 따라 소비되

고 어떻게 다시 학우들에게 환원될지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재정 비전 마스터 플랜에는 학교 측에서 판단한 등록금 인상 시 예상 수입과 주요 지출 항목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 분석이 포함돼야 합니다. 관련 기준이 마련돼야 학우들이 예산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플랜은 숫자로 이루어진 자료보다는 학우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고 정기적으로 설명돼야 합니다. 앞으로 등록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Q7. 신설 학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설 학부 협의체' 발족을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해당 협의체의 △논의 내용△운영 방식△참가 단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대학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기 위해 빈번하게 학과나 학부를 신설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우들의 의견은 수렴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학우가 책임져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민원이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협의체는 총학생회(이하 총학)를 중심으로 신설 학부와 통합 모집 소속 단과대학의 대표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교 본부 교무처와 같이 학사 관련 문제를 겪었을 때 직접적으로 학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협의체 발족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세부 사항은 발족 이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Q8. 학교 법인 정상화를 위한 1차 법인 대응이 최근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법인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 위한 '선명'만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우선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학교 운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려 학우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회성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교수협의회△글로벌 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동문회와의 연대로 학내 구성원 모두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법인에 강조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국회△청와대와 같이 외부 상위 기관과의 소통 내용을 법인 측에 공개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진행 중임을 알릴 계획입니다.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재정비하고 있어 점차 공개될 예정입니다.

## Q9. 학내 여러 현안에 대해 '선명'만의 차별화된 문제 접근법 및 해결 방식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를 현안을 단순한 민원이라 생각하기 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배경과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고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우들의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교의 행정 구조를 파악합니다. 이후 학교 측에 문제 사례와 학생 의견들을 바탕으로 한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도서관 에어컨 관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단순 에어컨 가동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워질 날씨에 대비해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 해까지 에어컨 가동 시기가 수정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단순히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저희가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 Q9-1.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선명'이 우선시할 가치는 무엇인가요?

선명은 결국 학생들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효성과 투명성을 우선적으로 지키고자 합니다. 학우들이 실효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게끔 책임을 지려고 하며 학우들의 목소리를 예외 없이 투명하게 전달하며 책임감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 Q10.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와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하은:** 문제 해결의 과정과 결과는 학생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로 남았는가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임기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전부 해소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흐릿하게 만들거나 미루지 않고 제도적 기반을 닦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대학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기구가 되기 위해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수연:** 이번 총학에서 두 번의 축제를 적지 않은 수의 공약을 보여 드릴 예정인만큼 끊임없이 달려가며 많은 것들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학우분께서 궁금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발맞춰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임기 끝까지 학생들 곁에서 흔들림 없이 열심히 일하는 총학이 되겠습니다.

# 누가 이들의 청춘을 돌보나... 가족돌봄청년 제도의 현주소와 과제

가족돌봄청년이란 정신 및 신체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병행해야 하므로 비슷한 연령대에 비해 학업과 취업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가족돌봄청년이 소득이나 근로 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 체계에서 충분히 체계적

인 지원을 받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난 3월부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본 기사를 통해 △가족돌봄청년 문제의 현주소△가족돌봄청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가족돌봄청년 문제의 현주소

통계청이 지난 2024년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한 가족돌봄청년 추정치는 지난 2020년 기준 약 15만 3,000명으로 이는 13~34세 청년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합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1.3%는 질병이나 장애 가족 등이 있는 경우만 계산한 최소치"라며 "정부에선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집행해 가장 보수적인 숫자를 추정치로 잡기 때문에 실제 수치로는 청년의 4~5% 정도가 가족돌봄 부담을 안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가족돌봄청년은 학업과 취업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양남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헬스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가족돌봄청년들은 학교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라며 "이들이 사회적 안전망 밖에서 미래를 저당 잡힌 채 청년기로 진입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보소통광장에서 발표한 시정 정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들은 가족을 돌보는데 하루 평균 4.8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가족돌봄 기간은 평균 6.72년에 달했다. 지난해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가족돌봄청년의 실태와 미충족 의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대학 진학률도 비교적 낮았다.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비율이 30.49%였고 대학교 재학 혹은 자퇴라는 응답은 19.51%였다.

또한 가족돌봄청년들은 경제적 빈곤과 심리적 불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앞서 언급한 시정 정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이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겪는 주요한 고충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90.8%로 집계됐다. 일례로 서울시 다큐멘터리 채널 '서울녹서'에서 가족돌봄청년 A 씨는 "가정의 유일한 소득자로서 대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소득이 변변치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4에 따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돌봄청년은 △13~18세(97.1%)△19~24세(55.8%)△25~34세(36.2%)로 집계됐다. 이러한 생활의 어려움과 더불어 문제의 심각성은 정신건강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우울감 유병률은 61.5%로 일반 청년(8.5%)의 7배를 넘어섰다. 삶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일반 청년의 2배에 달했으며 미래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36.7%였다.

## ◆가족돌봄청년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원인

먼저 가족돌봄청년 파악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당사자가 스스로 지원 정책의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신청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지난 2024년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과 지원 경험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 B 씨는 "애초에 가족을 돕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창한 호칭을 붙여놓은 것 같아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단어를 듣고 신기했다"라며 "설명을 듣다 보니 모두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24년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그간 전통적 방식인 저소득 가구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해 왔으나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이 가구에 속해있을 경우 저소득 지원체계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또한 노인과 중증장애인 중심의 돌봄 정책으로 청년 돌봄자가 배제됐다는 점도 문제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 과장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가족 복지△아동 복지△어르신 복지△장애인 복지 등 정당한 분류가 나뉘어 있는 편이었다"라며 "반면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은 상대적으로 적절하게 분류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주최한 간담회 '네모 밖의 대화'에서는 17년간 가족을 간병한 가족돌봄청년 C 씨가 "어린 나이에 누군가를 돌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돌봄 상황이 너무나도 황폐했다"라며 "병원과 방문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 등 서로 정보가 연결되지 않아 그 단절은 결국 보호자인 청년이 매꿔야 한다"라고 가족돌봄청년의 고충에 대해 토론했다. 지난 3월 시행된 통합돌봄지원법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거주지에서 △돌봄△요양△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으나 적용 대상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이던 중증장애인이었다. 이 때문에 65세 이하 한 환자 부모를 간병하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형제를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통합돌봄에서 소외되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마다 상이한 지원 대상자 기준의 문제가 있다. 지난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3곳(9.5%)만이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가 있는 곳조차 나이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같은 상황의 청년이라도 거주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나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3~34세로 권고했으나 △9~24세 적용(6곳)△9~34세 적용(5곳)△9~39세 적용(4곳)△19~34세 적용(2곳) 등 적용 나이가 다양했으며 기준이 부재한 곳도 있었다. 명칭 또한 지자체마다 △가족돌봄청년△가족돌봄청소년△가족돌봄아동·청소년△가족돌봄청소년·청년 등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다양하게 정의했다. 이에 대해 베이베뉴스에서 채희옥 조목유산 옹호기획팀장은 일관성 없는 정의와 지원체계는 당사자 스스로 본인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정책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 D 씨는 가족돌봄청년 선별 기준이 불확실했다 행정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 ◆나아가야 할 방향

에이블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 학계에서 가족돌봄청년 정책 대응 수준이 최저 단계로 분류될 정도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기 가족돌봄청년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포괄 관계 단절△진로 제한△학업 중단 등의 사회적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자신의 상황을 학교나 지역사회에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숨겨진 집단'으로 사회 뒷면에 가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집중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대상자 파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은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비대면 지원을 제공한다. 일본은 센다이(仙台)시를 거점으로 한 돌봄 및 지원 상담창구 '소요기(そよぎ)'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처럼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상담과 긴급 지원을 결합한 모델을

실시했다. 상담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아바타 방식으로 진행하며 지원금은 중간 절차를 최소화해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한편 영국은 '아동 및 가족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 내 가족돌봄청년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청소년 돌봄 자 육구조사'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며 영국 정부는 민간단체와 협력해 교육기관이 가족돌봄청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교육부△더 칠드런스 소사이티(The Children's Society) △보건부△케어러즈 트러스트(Carers Trust)는 교내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역시 위 국가의 사례들을 참고해 봄 직하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의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가 더 강화돼야 한다. 예컨대 아일랜드는 온라인 플랫폼과 긴급 상담 전화 운영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회원으로 등록하면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돌봄청년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영 케어러 그룹(Young Carer Groups)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 간의 소통과 연대의 장구를 마련해 유의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간 지지와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 지난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 장애 가정의 영케어러 지원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적△심리적△정서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지할 수 있는 중장기적 사례 관리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은 △개별 거주 환경△돌봄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장애 종류와 중증도△생애주기 환경에 따라 다양하고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 차원의 첫발을 땀다. 아직 보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가족돌봄청년이 법률 안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이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지자체 간 지원 기준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 가족돌봄청년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 2026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 1. 2026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6.04.03(금) ~ 04.17(금)	2026.05.29(금) ~ 06.12(금)
고사장 발표	05.06(수) 15:00	06.24(수) 15:00
면접전형	05.09(토) 10:00 예정	06.27(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5.21(목) 14:00	07.02(목) 14:00
등록예치금 납부	05.26(화) ~ 05.29(금)	07.06(월) ~ 07.10(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언어·커뮤니케이션학과
-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학과

####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국어로로서의 한국어언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어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와 동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접수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 5. 제출서류(지원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지시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연간달리 이상)

####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국내 해당국가 대사관의 공증서 제출 필요
-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가산점 부여)
- 2) TOP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 8. 특전

- 가. 성적 우수자 3학기 졸업 가능(별도의 조기졸업심사 진행)
- 나. 3학기 졸업 트랙 운영
- \* 논문(24학점 이수), 연구보고서(28학점 이수), 추가학점(32학점 이수)
- 다. 장학금 : 성적우수/우수외국인/동문/근로장학금 등 장학 혜택
-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가능(외환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차처

TEL. 02-2173-3982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차처(대학원 106-1호)



##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6학년도 후기 모집

###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6. 3. 31(화) ~ 4. 9(목) 4. 9(목)	원서작성: 2026. 5. 19(화) ~ 5. 28(목) 5. 28(목)
면접 전형일	2026. 4. 25(토)	2026. 6. 13(토)
입학설명회	2026. 5. 15(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온라인 입학설명회 세부 안내는 추후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특징

-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 나. 유엔평화대학 이중학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학과, 한국학과, 중남미학과, 유럽연합학과)
- 다.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취득)
-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 마. 졸업 후 많은 동문들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제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 모집: 석사학위과정(4학기)

학 과 (전 공)	학 위
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전공(특별과정)	국제지역학석사, 경제학석사

#### ◎ 모집일정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6. 3. 31(화) ~ 4. 9(목) 4. 9(목)	원서작성: 2026. 5. 19(화) ~ 5. 28(목) 5. 28(목)
면접 전형일	2026. 4. 25(토)	2026. 6. 13(토)
입학설명회	2026. 5. 15(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 특징

-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의 고유가치인 지역학 접목
-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심화 연구를 아우르는 실무 통상 전략가 양성을 목표로(커리어개발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사장 명의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 마. KOTRA 현지 무역관 연계 단기 현장학습 추진
- 바. GBC(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 민간 1급) 자격증 연계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Email: huf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어서와 해외는 처음이지

갓성비 유럽 살이? 베오그라드에선 가능

난 우리대학의 대표적인 국제 교류 프로그램인 '7+1 장학 프로그램'에 선발돼 내 전공 국가인 세르비아에 다녀왔다. 스릅로비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 발칸반도에 있는 여러 학교 중 원하는 곳을 고를 수 있었지만 난 1학년 때부터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Beograd)에서 생활하기로 했다. 내가 다녔던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대학교(Univerzitet u Beogradu)는 2월 중순에 개강해 5월 중순에 종강하는 밀도 높은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종강 후 3주 뒤에 치르는 시험에 통과하면 전공 1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 학업적 성취와 현지 경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현지 적응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난 개강 일주일 전에 베오그라드에 도착했고 이미 체류 중이던 선배와 동기들의 도움 덕분에 세르비아에서의 낯선 생활에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첫 일주일엔 세르비아의 유명한 산책길인 칼레메그단(Kalemegdan)과 성사바 성당(Hram svetog Save) 등의 관광 명소를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다. 베오그라드 대학교는 여학당이기 때문에 일본인, 중국인, 튀르키예인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했다. 주 4일간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 △문법, △일상 표현, △대화 등을 교수님께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하교 후엔 시네마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거나 스노우볼을 하며

양인 학생이 혼자 밤거리를 다니기에도 안전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덕분에 교통비 부담 없이 도시 구석구석을 누빌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여타 동유럽 국가에 비해 저렴한 물가는 물론이며 서유럽의 주요 도시들과 달리 소매치기 걱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치안이 훌륭해 동양인 학생 혼자 밤거리를 다니기에도 무리가 없었다.

물론 고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체류 당

지켜보며 민주주의 실현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은 국가와 인종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내 교환학생 경험은 내 적응력과 자기 주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계기가 됐다. △문화, △생활 방식, △언어까지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서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지만 열린 자세로 사람들과 적극 소통하고 스스로 공부 방법을 찾으며 점차 자신감을 얻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환경에 빠르



일상을 보냈고, 저녁엔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며 요리 실력도 키울 수 있었다. 만약 세르비아에 방문한다면 'TO JE TO'라는 식당을 정말 추천하고 싶다. 발칸 전통 음식인 체바피(cevapi)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난다.

세르비아의 가장 큰 장점은 생활 환경이다. 우선 물가가 동유럽 중 저렴한 편에 속해 학생이 거주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소매치기 걱정이 큰 서유럽과 달리 치안이 훌륭해 동

시 격화됐던 세르비아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무척 심했기 때문이다. 몇 주 동안은 해당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베오그라드로 많은 인파가 몰려 교통이 마비되고 이동이 제한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역설적으로 내게 가장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됐다. 우리 학과의 전공 수업인 유고학에서 배운 발칸반도의 역사가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맞닿아 있음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평화 행진을

게 녹아들어 과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 세르비아에서의 시간은 내게 잊지 못할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김수빈 (국제전락 · 세르비아크로아티아 23)

정일성 기자 12ilseong@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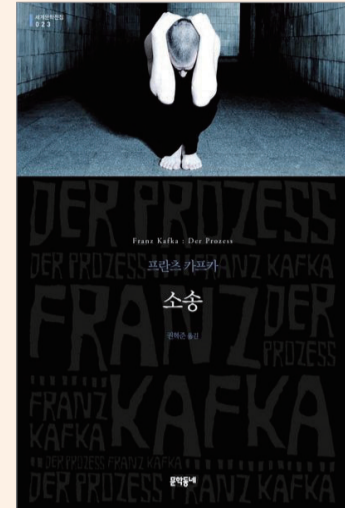


읽어서 세계속으로

독일

<소송>

- 무죄를 주장할 권리조차 없는 세계 -



"누군가 요제프 K를 중상모략한 것이 틀림없다. 그가 무슨 특별한 나쁜 짓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침 느닷없이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의 '소송'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체포 장면으로 시작된다. 소설 속 주인공 요제프 K(Josef K, 이하 K)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한 채 체포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 평소처럼 은행에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일상을 이어간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소송의 과정마저 K에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K는 △고발자가 누구인지, △자신의 죄목이 무엇인지, △재판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 관계자들과 가까운 인물들에게 도움 요청, △변호사 고용, △허름한 법정 방문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한다. 그러나 소송은 끝내 명확해지지 않는다.

작품 속에 "진정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정직한 개인적 관계, 특히 고위 관리들과의 연줄"이라는 말이 언급된다. 이는 '소송' 속 재판이 합리적인 절차보다 법원 관계자와의 개인적 연줄에 기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설 속 법원 주변 인물들, △변호사, △사화가는 이 불투명한 법체계를 문제 삼기보다 그 안에서 K의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 방법에 대해 말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건의 진실이나 공정한 절차보다 법원 관계자들과의 관계와 판사에게 남기는 인상으로 보인다.

법원은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보다 절대적인 권력처럼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은 그 권력에 순응한다. 결국 1년 뒤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 때문에 재판받았는지 알지 못한 채 처형당한다. 이 모습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라기보다 개인을 불투명한 권력 앞에 세워두는 정의롭지 않은 구조처럼 느껴진다.

이 책은 법이 진정한 정의로서 기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한다. '소송' 속 법원은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라기보다 누구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권력에 가깝다. 법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은 권력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순응한다. 법원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한 근거와 정당한 절차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지 않고 변호할 기회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불투명한 권력의 강요일 뿐이다. '소송'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법이 근거와 절차를 잃을 때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언어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GMC대학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26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특별·일반 전형)

1. 2026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 전형 일정	일반 전형	장소
원서접수	2026.4.13(월) - 4.30(목)	2026.6.1(월) - 6.18(목)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서류제출	2026.4.13(월) - 4.30(목)	2026.6.1(월) - 6.18(목)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대학원 111호)
면접대상자 발표	2026.5.6(수) 15:00	2026.6.24(수) 15:00	개별 공지
면접전형	2026.5.9(토) 10:00	2026.6.27(토) 10:00	화상면접
합격자발표	2026.5.22(금) 15:00	2026.7.10(금) 15:00	홈페이지에서 확인
합격자등록	2026.5.26(화) - 5.29(금)	2026.7.13(월) - 2026.7.17(금)	우리은행 전국 지정 가상계좌 납부가능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족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과 및 전공  
가. 미디어비즈니스 · 엔터테인먼트 · 오프라인 과정  
나. 디지털미디어융합전공 - 온라인 과정

3. 지원자격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부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 화상면접(추후 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gmc.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282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Y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6.4.13(월) - 4.24(금)	2026.6.1(월) - 6.12(금)
면접전형	2026.5.9(토) 10:00	2026.6.27(토) 10:00
합격자 발표	2026.5.22(금) 16:00 예정	2026.7.10(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6.5.26(화) - 5.29(금)	2026.7.13(월) - 7.17(금)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교육</li> <li>스페인어교육</li> <li>역사교육</li> <li>수학교육</li> </ul>
모집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어교육</li> <li>일본어교육</li> <li>일반사회교육</li> <li>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li> </ul>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영어교육</li> <li>독서논술교육</li> <li>문화콘텐츠교육</li> </ul>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 이상 이수자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입학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12173-2419 FAX. 021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페이지 : gse.hufs.ac.kr  
○ 이메일 : hufsgse@hufs.ac.kr

◆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 Uwayapply.com)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증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y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보이지 않는 노동의 가치, 외대를

지난 1일 노동절을 맞아 외대학보는 우리들이  
이들은 이른 새벽부터 학생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서 학내 청결과 편의를 위해 묵묵히 맡은 업무를 이어

##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는 좁은 면적에 비해 학생 수와 건물 수가 많아 밀집도가 높다. 높은 밀집도로 인해 시설 이용률이 높은 만큼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외대학보는 교내 노동자들과 업무를 함께하며 그들의 삶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 ◆도서관 청소 노동자의 하루

도서관 청소 노동자들의 하루 일과는 새벽 4-5시에 출근해 오전 9시까지 도서관 내부를 청소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로 하는 일은 △복도 쓸기 및 닦기△쓰레기 분리수거△열람실 청소△화장실 청소다. “학생들이 많아서 빨리 청소해요. 학생들이 많이 모이기 전에 내가 해야지 될 시끄럽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찍 출근한다는 박정자(가명) 씨(이하 박 씨)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한다. 도서관에 도착한 기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먹다 남은 음료수가 산처럼 쌓인 쓰레기통이었다. “강통은 강통대로 병은 병대로 전부 꺾대기를 벗기고 하는 거예요” 박 씨가 알려준 대로 음료가 남아 있는 컵은 음료만 모아 번기에 흘려보내고 빨대가 꽂혀 있는 컵 역시 따로 분류해 빨대만 일반 쓰레기 봉지에 담았다. 기자가 바닥에 앉은 음료가 남은 캔과 플라스틱 컵을 분리하고 나니 팔과 다리에 오물이 한가득 묻었다. “허리 많이 아프지. 팔도 당연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일하러 왔으니까 당연히 힘든 거야” 일이 힘들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씨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분리수거와 복도 청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기자에게 다른 업무가 주어졌다. 650석이 넘는 열람실 좌석의 조명과 책상을 일일이 닦는 일이었다. 주어진 장비는 걸레 2장과 바구니 1개가 전부였다. 중간고사를 일주일 앞둔 열람실에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다. 방해가 되지 않도록 1시간 동안 먼지를 닦고 나니 땀이 흥건한 채 머리가 어지러웠다.

오전 9시가 되자 오전 업무가 끝이 났다. 도서관 1층 열람실 출입구 옆 경비실 안쪽에는 도서관 노동자들의 휴게실이 있다. 이곳에서는 주로 노동자 5-6명이 모여 집에서 가져온 반찬들로 아침 식사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다. 이들은 오전 업무를 마친 뒤 휴게실에서 식사 및 휴식을 취하면서 오후 4시까지 같은 업무를 반복한다.

기자가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해 질문하자 이들은 큰 불만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도서관에 근무하는 김형규(가명) 씨는 쓰레기를 버리는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전했다. “하루에 1만 명 정도가 출입하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는 건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학생들이 음료를 깔끔하게 버리고 페트병을 잘 버려줬으면 좋겠어요”

### ◆국제학사 청소 노동자의 하루

남녀 기숙사와 동아리 방 및 학생회실이 모여있는 국제학사에는 총 8명의 노동자가 근무한다. 새벽 5시 30분 모두가 잠든 사이 각 층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일이 이들의 첫 번째 업무다. 오전 9시까지 청소가 끝나면 휴게실로 돌아와 식사 및 휴식을 취한다. 휴식을 취하고 나면 각자 맡은 구역에서 바닥을 닦거나 화장실을 청소하는 두 번째 업무로 하루를 보낸다. 이들이 주로 맡는 구역은 △교수회관△남녀 기숙사△동아리 방△학군단 건물△학생회실이다.

기자가 국제학사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직접 만나 함께 근무하며 일에 대해 질문했다. 기숙사를 담당하

는 숙사 퇴실할 때, 막 산더미야. 그때는 한 층에 8명이 다 들어가서 해야 해” 조 씨와 함께 층마다 쓰레기를 수거한 뒤 1층으로 내려가 버리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 기자와 조 씨의 몸엔 어느새 땀이 흥건했다. “여름에는 작업복을 3번 이상 갈아입어요. 그렇게 해야 그나마 덜 힘들더라고요. 여름엔 한 20벌 정도는 갖다 놓고 해요” 기자가 땀으로 흥건한 조 씨에게 일이 힘들지 않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답했다. “그래도 70세까지 일할 수 있으니 까 저희는 행복하게 일해요. 저는 힘들어도 학생들이 있으니까 저도 있는 거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같이 아침 먹고 가요” 오전 업무가 끝나고 휴게실에 모인 노동자들이 기자에게 아침 식사를 권했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반찬을 나눠 먹으며 업무 고충에 대해 질문



는 조석철(가명) 씨(이하 조 씨)는 기본적인 건물 청소 외에도 계절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져 건물 외곽을 한 시간 정도 쓸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뒷길도 쓸어요. 쓸고 나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니까 늘 많아요. 겨울엔 직원들이 다 같이 나와서 눈도 치우고 다시 일을 하죠” 남녀 기숙사의 경우 평소에는 2명 정도가 각 층을 분담해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지만 때때로 다른 구역을 맡은 노동자들이 업무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기자가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제냐고 묻자 윤미금(가명) 씨는 연휴와 기숙사 입퇴소 시기라고 답했다. “쓰레기통이 제일 많이 찼 때는 기

했다. “그 물자 질약 좀 해야 돼. 보봐. 이게 화장실 불일을 보는데 휴지를 이렇게 도배해놔. 화장지를 너무 많이 뜯어서 번기에 넣어놓는 물을 안 내려요” 함께 있던 다른 노동자들도 고충에 대해 토로했다. “화장실에 술 마시고 번기에다 안 보고 밖에다 싸 놓는 것도 몇 번씩 있었어요”

기자는 보람찬 순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외국인 여학생이 핸드폰으로다가 장문의 편지를 써서 며칠 전에 줬어요. 자기들을 돌봐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바쁘고 지친 순간에도 신미순(가명) 씨는 훈훈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답했다.

기자가 노동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묻자 이성철(가명) 씨는 “그 동아리 방들이 있는 곳을 보면 복도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유독 먼지가 안 빠지니까 하루만 안 닦아도 먼지가 쌓여”라고 조심스레 답했다.

### ◆식당 노동자의 하루

인문과학관 식당 노동자들 역시 청소 노동자 못지않게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다. 총 22명으로 구성된 식당 노동자들은 오전과 오후에 교대로 근무하며 △바닥 청소△배식실걸리지△재료 손질△조리 업무를 맡는다. 이들이 하루에 조리하는 양은 평균 3,000인분에 달한다. 식당에서 근무하는 정선희(가명) 씨(이하 정 씨)는 가장 바쁜 순간으로 배식 시간을 꼽았다. “학생들이 수업 끝나서 식사 많이 하러 올 때 더 바빠져요” 여름이 되면 이들의 노동 강도는 더 높아진다. 더운 열기 속 선풍기만 의존한 채 마스크와 작업복을 입고 조리하기 때문이다. “한여름에는 더워서 많이 힘들고 여기가 시설이 워낙 낙후되다 보니까 안에 중앙 에어컨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계속 꿇고 튀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선풍기나 아니면 외부에서 배식구에서 들어오는 에어컨 바람이 정도로만 냉방이 되는 거죠” 이어 정 씨는 보람찬 순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제 학생들은 더 먹으러 오면서 되게 미안해하면서 오잖아요 근데 사실 더 먹으러 온다는 건 맛있어서 먹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럴 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더 먹을 때 학생들이 주저하지 않았으면 해요” 한편 식당 노동자들의 이런 높은 업무 강도는 인력난의 원인으로도 지적된다. “최저 임금이 동일하다 보니까 청소 쪽은 그래도 인력 수급이 잘 되는데 저희는 없어요. 이걸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교가 거의 상시 모집이예요. 식당 쪽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구하기가 힘들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 손발이 안 맞고 힘들죠”라며 이들의 고용 불안 정성에 대한 아쉬움도 엿볼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좀 애매하게 학교 소속이긴 한데 약간 독립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 고용에 대해서도 불안정한 지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 근로의욕도 오르기 어려운 실정이지요”라고 답변했다.

# 를 빛내는 곳엔 항상 그들이 있었다

리대학 곳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어가고 있다. 평소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항상 우리대학의 일상을 지탱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 [글로벌캠퍼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는 산지에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상 캠퍼스 관리에 있어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낙엽△배수△수목△제설 관리 등 자연 환경과 밀접한 업무가 많아 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글캠에는 경비와 미화를 비롯해 영선\*과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캠퍼스를 관리하는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외대학보는 각 분야 노동자들의 업무 현장과 목소리를 통해 학생들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캠퍼스의 일상이 어떤 노동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 ◆영선 및 조경 노동자의 하루

“우린 쉬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일이 없을 때마다 틈틈이 쉬는 거죠” 영선 노동자에게는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다. 수리나 관리가 필요한 순간 즉시 대응해야 하는 작업 특성 때문이다. 이들의 하루는 오전 9시 글캠 곳곳의 시설을 점검하면서 시작된다. 이어서 △내부 시설△도로전등 등 각종 설비를 살피고 나무와 녹지를 가꾸는 일이 오후 5시까지 이어진다. 점심은 후생관이나 캠퍼스 밖에서 해결하고 학교 행사가 있는 날에는 거의 쉬지 못할 때도 많다.

기자의 질문에 영선 노동자 강성주(가명) 씨는 강의실 문이 고장 났을 때의 상황을 떠올렸다. “수업을 해야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바로 달려가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해요”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하루는 더 길어진다. 학생들의 통학과 교내 이동을 위해 제설 작업이 이어지고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염화칼슘을 뿌려 눈을 녹이는 일은 캠퍼스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폭설이 내릴 때 학교 지형상 눈을 치우지 않으면 통행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밤새 도로에 나와 제설 작업을 반복하죠. 다음 날도 그대로 근무를 해야 하니 이럴 때가 가장 힘들죠”

조경 작업의 환경 역시 만만치 않다. 폭염주의보나 폭우 경보가 발령되면 20분씩 쉬어가며 조경 작업을 이어간다. 캠퍼스 곳곳에 자리한 약 380 그루의 나무 관리도 큰 부담이다. “평지에만 있으면 좋겠지만 경사로에 있는 나무가 많아 사다리를 타고 작업해야 해요” 사람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전지를 해야 하는 위험도 있고 겨울철 얼어붙은 땅 위에서 넘어지는 일도 다반사다. 심지어

어 조경 노동자 양동천(가명) 씨는 여름철에 벌에 쏘여 병원에 간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일을 이어간다. “그래도 작업 중에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수고합니다’ 한마디 해주면 너무 고맙고 힘이 나요” 학생들의 짧은 인사 한마디가 이들에겐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다.

### ◆환경미화 노동자의 하루

“학생들 수업 시간이나 공부하는 시간을 피해서 일부터 사람이 없는 시간에 열람실 청소를 해요” 시험기간을 앞둔 도서관 미화원의 하루는 오전 7시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오후 4시까지 도서관 곳곳을 돌며 쌓인 쓰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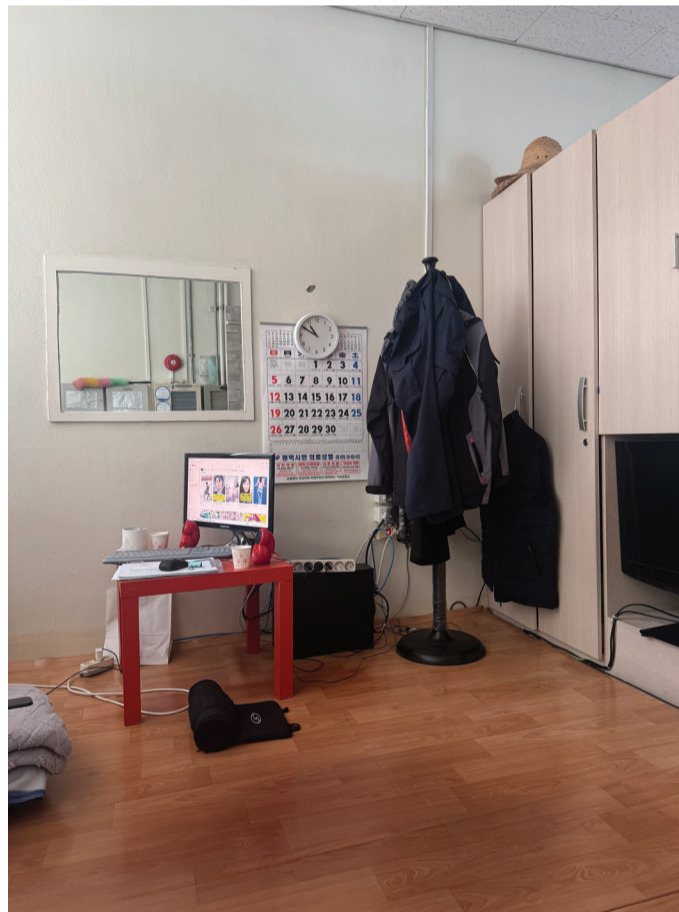


를 치우고 공간을 정비한다. 짧은 시간 안에 전날 쌓인 쓰레기를 처리하고 △바닥△복도△의자△책상까지 정리해야 한다. 바쁠 때는 식사 시간이 부족해 도시락을 싸 와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도서관 이용량이 급증하는 시험기간에는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업무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화장실 청소였다. 화장실에는 휴지와 물티슈가 변기에 버려져 배관이 막히는 일이 빈번하다. 함께 한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공학관 배수관이 막혀 외부 업체를 부른 적도 있다고 전했다. 기자가 쓰레기 양이 많아 힘들지 않냐고 묻자 고순희(가명) 씨(이하 고 씨)는 또 다른 고통을 언급했다. “쓰레기 양도 양이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더 힘들어요. 남은 음료는 액체를 따로 비우고 버려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음식물까지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나아진 편이라고 토로했다.

도서관 앞 휴먼 구역의 상황도 비슷했다. 담배꽂

수거함이 마련돼 있음에도 바닥에는 담배꽂이가 흩어져 있었다. “꽂이가 너무 많아서 낙엽 치우는 기계로 정리할 때도 있어요” 고 씨는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꽂이를 주워 담고 있었다.

백년관 미화원의 하루 역시 일찍 시작된다. 오전 6시 30분 교직원과 학생들이 학교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이들은 일과를 시작한다. 한서현(가명) 씨(이하 한 씨)가 맡는 공간은 △교직원 사무실△총장실△학생들이 이용하는 열람실△회의실이다. 기자는 이른 아침 사무실을 함께 청소해 봤다. 한 씨는 각 자리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한 뒤 책상 위 물건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꼼꼼히 닦아냈다. 바닥을 걸레질 또한 분주하게 진행했다. 다른 직원들이 9시에 출근하기 전에 모든 일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바쁘긴 해도 학생들이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



서 공부하는 거 보면 뿌듯해요.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있는 거죠”.

### ◆경비 노동자의 하루

백년관 경비실의 여러 모니터 화면에는 교내 곳곳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다. 경비원들은 자리에 앉아 수십 개의 화면을 번갈아 확인하며 캠퍼스의 안전을 살핀다. 경비 업무는 24시간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격일제로 이루어진다. 당일 오전 6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뒤 교대하는 방식이다. 담당구역은 △교양관△어문관△인문경상관 쪽과 △도서관△학생회관△후생관 쪽 그리고 △공학관△자연관△창업보육센터 쪽으로 구분된다. 구역이 나뉘어 있어도 건물 사이 거리가 멀고 경사도 많아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외부 근무가 쉽지 않다. 순찰 중에는 학생이나 외부인 관

리뿐 아니라 위험 시설물 점검도 함께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휴먼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꽂이를 버리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비실 한쪽에는 간이로 마련된 평상이 놓여 있었다. 이들은 자정 무렵부터 새벽 5시 사이 이곳에서 잠시 눈을 붙인다. 편안해 보이지 않는 이 평상 위에서 경비원들의 하루는 계속된다. 평상이 불편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송영철(가명) 씨는 열은 미소를 지은 채 “아니에요 불편하지 않아요. 잘 자요”라고 답했다.

밤에도 업무는 계속된다. 기숙사 통금시간이 지난 뒤에는 취객을 관리하거나 학생들의 출입을 확인하는 일이 이어진다. 도서관에서 밤을 보내는 학생들을 살피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통금시간이 지난 뒤에는 술에 취한 학생들을 기숙사로 들여보내는 일이 많아요. 그래도

대부분은 친구가 부축해서 함께 와서 다행이죠” 별점을 피하려 도서관에서 밤을 보내는 학생들이 있을 땐 순찰을 돌면서 신경이 쓰인다고 했다. 최근에는 외부인 유입이 늘며 관리의 어려움도 증가했다. 가을철과 같이 방문객이 많은 시기에는 경비 인력이 정문에 집중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반려견 출입△음식물 투기△주차 문제처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외부인 단속 과정에서 욕설을 듣는 경우도 있다. “왜 미리 안 내하지 않았냐며” 이상한 학교다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학교 이미지가 있다 보니 결국은 웃으며 넘길 수밖에 없죠”

### ◆나아가야 할 방향

본 기사에서 다룬 △경비△미화△영선△조경 분야 외에도 우리대학 캠퍼스 곳곳에는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힘쓰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우리대학의 이름을 빛내는 데에는 이들의 몫이 결코 적지 않다. 현재도 우리가 무심코 이용하는 학내 시설은 학내 노동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동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63년 만에 노동절이 공휴일이 된 지금 이들의 수고를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수고가 급여를 받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시선이 아닌 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학내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 작은 관심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영선: 건축물 따위를 새로 짓거나 수리함.

# 자진 폐쇄 뒤에 남은 불씨, 불법 웹툰 생태계의 근본적 해결책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NEWTOKKI)'가 돌연 자진 폐쇄에 이목이 집중됐다. 자진 폐쇄로 인해 불법 웹툰 유통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웹툰 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익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름과 형태만 바꾼 대체 사이트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점과 신인 작가의 데뷔적이 불법 복제돼 도박사이트 광고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창작 생태계에 도래한 위험은 언제든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기사를 통해 웹툰 생태계의 피해 현황·불법 웹툰 생태계의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웹툰 생태계의 피해 현황

불법 사이트로 인한 창작 생태계의 피해는 이미 웹툰 산업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년 웹툰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툰 산업의 연간 산업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선 한편 불법 웹툰 시장규모는 4,465억원에 달해 합법적인 웹툰 시장의 약 2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토끼의 경우 지난 2024년 기준 누적 페이지 조회수가 11억 5,000만 회에 달해 국내 주요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따른 저작권 피해액은 월 398억 원으로 추산됐다. 창작자 개인이 겪는 피해 역시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서 작가 A 씨는 디지털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하루 12~14시간씩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공개 직후 불법사이트에서 바로 쓰러져"라며 "저는 정신력이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신적으로 허탈감이 느껴지고 위경련 때문에 고생했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 접속 차단법을 시행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도 문화체육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사이트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사이트 차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기존에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개정안은 서면 심의 도입 등을 통해 처리 속도를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평균 1~2주가 소요되던 차단 기간이 최소 2~3일 이내로 단축되면서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제도적 수단을 통한 정부의 지속적인 접속 차단과 운영진 압박은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창구였던 뉴토끼를 공식 폐쇄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법 웹툰 사이트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운영방식은 더욱 교묘해졌다. 정부가 특정 URL을 차단하면 운영자들은 곧바로 숫자나 주소 일부만 변경한 새로운 대체 사이트를 개설해 이용자들을 유도한다. 실제로 JTBC 뉴스에 따르면 뉴토끼가 자진 폐쇄를 선언한 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텔레그램과 SNS를 중심으로 대체 사이트 목록이 빠

르게 공유되면서 이용자 대이동이 일어났다. 해외에 서버를 둔 탓에 물리적인 서버 압수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URL만 바뀌거나 수사망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강력한 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대응의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 ◆불법 웹툰 생태계의 원인

뉴토끼와 같은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가 국가의 감시망을 피해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운영진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신분 세탁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외 국적을 방패삼아 범죄인 인도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 사이트 운영을 지속해왔다. 특히 이번 뉴토끼와 관련해서 수사 당국은 핵심 운영자 중 한 명은 지난 2022년 일본으로 귀화한 인물로 신원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송환에 어려움을 겪어 처벌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차단 속도를 압도하는 URL 복제 속도다. 앞서 언급했듯이 운영자들은 접속 차단 조치가 내려지기 무섭게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새로운 링크를 유포한다. 사이트를 차단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리지만 새로운 대피소 사이트가 개설되는 데는 단 15분이면 충분해 불법 사이트 이용자들은 정부의 접속 차단 정책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학생 B 씨는 외대학보의 인터뷰를 통해 "웹툰을 전부 유료로 보기에 급전적인 부담이 커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본 적 있다"라며 "사이트를 사용해본 입장으로서 이번 뉴토끼가 막혔다고 해서 사람들이 웹툰 보기를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구글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디스크오드 오픈채팅방·텔레그램 등에 개설된 공유 채널에 들어가면 새로운 우회 링크를 쉽게 찾을 수 있다"라며 "따라서 정부가 사이트 주소를 막는다고 사람들이 당장 불법 시청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단일한 저작권 인식 역시 불법 웹툰 사이트 확산의 주요 원인이다. 유료 디지털 콘텐츠인 웹

툰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유료 결제에 대한 부담이 맞물리면서 불법 유통 시장의 거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앞서 언급한 '2024 웹툰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 이용 이유로 '유료 결제 비용 부담'(32.8%) 외에도 '웹툰은 유료 결제할 가치가 없다'(12.2%)는 응답이 상당수 나왔다. 이렇듯 높은 수요가 존재하고 전문화적인 범죄 수익이 보장되는 한 범죄 조직은 불법 사이트 운영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 1위 불법 웹툰 사이트였던 뉴토끼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더라도 범죄 수익 모델이 유지되는 한 형태와 이름만 바꾼 새로운 불법 사이트가 언제든지 부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으로 바로 여기에 있다.

## ◆나아가야 할 방향

현 웹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선 실효성 있는 국제 수사 공조망의 체계적인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형 불법 사이트의 서버와 핵심 데이터를 담은 메인 서버는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닿지 않는 해외에 위치한다. 이에 국내에 국한된 수사권만으로는 이들을 전부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경호 국민대학교 사이버보안전공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통과된 긴급 접속 차단법이 국내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으나 결국 해외에 있는 핵심 운영진을 검거해야만 실질적인 차단이 가능하다"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법 서버가 주로 위치하는 국가들과 맺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사이버 범죄 추적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특히 인티폴을 비롯한 각종 수사기관과 △범죄인 신속 인도 청구△실시간 수사 정보 공유△합동 압수수색 진행을 즉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국제 공조 제도를 신설해야 해외로 도피한 운영자를 검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전문가의 지적처럼 범국가적인 합동 단속은 범죄 조직의 은신처를 파괴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이다.

정부의 차단 속도를 압도하는 URL 복제 속도에 대응할 선제적 방어체계 구축 역시 시급한 과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는 행정기관의 개별 심의에 의존하는 대신 불법성이 명확한 복제 사이트에 한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기계적으로 즉각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불법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 요청까지 자동화하는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나아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국가 산업을 훼손하는 범죄임을 명확히 가르치는 저작권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의무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규 교육과정의 경우 기술·가정과 정보 교과서에 저작권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 수업 시간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청소년 38만 9,496명△성인 29만 7,741명△총 68만 7,237명이 저작권 교육을 받았지만 이는 전국 청소년의 5.6%와 성인의 1%에 불과하다. 한편 미국의 'Copyright&Creativity' 프로그램이나 영국의 'Cracking Ideas' 캠페인 사례처럼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지식재산권 교육을 디지털 리더십의 핵심으로 다루며 학생들이 창작자의 입장에서 법적 권리와 경제적 가치를 체득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단순한 도덕적 훈계를 넘어 저작권 보호가 문화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할 것이다.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의 자진 폐쇄는 불법 사이트 문제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막대한 시간과 자본이 투입된 웹툰 생태계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선 △법 제도의 보완△정부의 지속적인 추적 수사△저작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은 웹툰 산업이 불법 사이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치열한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서영 기자 12seoyoung@hufs.ac.kr

# www.사사한줄토막.com

## 정치 두 달 넘어가는 대법관 공석 사태... 사법 공백 우려

지난 3월 노태우 전 대법관(이하 노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자리에 공석이 생긴 지 약 두 달이 지났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4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제정권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이하 조 대법원장)이 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국회 동의를 받은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 대법원장이 여태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정하지 않은 데엔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이견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상고심 처리가 늦어지고 부실 심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조속한 협의와 대법관 제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 삼성전자 노조, 영업이익 15% 요구... 총파업 현실화되나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최근 4개월 동안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인원만 200명이 넘는다"라며 △성과급 산정 방식 투명화△성과급 상한제 폐지△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승현

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파업 장기화에 따른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감소를 우려했다. 고용노동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노조 측과 접촉하며 중재에 나선 상태로 노사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낮은 신용평가 틀 넓혀야", 금융 시스템 개편 신호탄 되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하 김 실장)이 금융권의 기존 신용평가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시스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받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자신의 SNS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 글을 연이어 게시하며 중신용자와 저신용자가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실장은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을 "이 잔인한 시

스템을 정당화해 온 공범"이라고 자성했다. 이어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라며 현행 신용평가 체계의 한계를 비판했다. 김 실장은 대안으로 △서민금융 기관 역할 재정립△신용평가 개선△은행의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금융권에선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이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관련 제도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국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한 우리나라 선박, 트럼프 미 대통령 군사작전 참여 압박

중동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나라 선사가 운송 중인 선박이 피격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입었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40분경 호르무즈 해역 내측 울양쿠와인항 인근에 정박 중이던 HMM 선박에서 피격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선박에는 우리나라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2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

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라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역시 우리나라의 '해방 프로젝트' 작전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내법 절차△국제법과 국제 해상로의 안전△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개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재판소원 제도 도입,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가져올 변화는

지난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개정 및 동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이 시행됐다. 이로써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제도 시행을 두고 △사건 적체의 심화 우려△실질적인 기본권 보장 기여에 대한 기대△충분한 사전 준

비 부족 등의 의견이 나오며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 법률의 △구체적 내용 및 의의△추가적인 논의 지점△향후 예상되는 문제의 보완 방향성 등에 대해 전학선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전학선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Q1. 재판소원의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현재는 심판청구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하기 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적법 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합니다. 지정 재판부에서 사건이 적법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현재는 본안 심리를 거쳐 종국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소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적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Q2.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며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재판소원 제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재판소원 제도의 핵심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현재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공권력의 행사에는 입법권의 행사인 법률과 행정부의 행정 작용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법원의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제도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재판이 헌법이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재판소원을 통해 한 번 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Q3.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의 본질은 4심제가 아닌 헌법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4심제와 재판소원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3심제인 지금의 심급제도가 흔들리고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하지만 심급은 같은 법원 내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을 의미하기에 다른 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이는 심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원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1심 재판△2심 재판△3심 재판 총 4번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와 법원은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4심제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과 별개의 기관인 현재의 판단을 4심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재판△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헌재의 결정에 귀속 여부에 반하는 재판 등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 법원의 규제가 닿기 힘든 사각 지대에 있기 때문에 재판소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 Q4.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사법권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법원 역시 헌법을 보다 엄격히 준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소원이 도입됨으로써 개별 재판부가 더욱더 재판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사실 현재와 법원이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 이유는 헌법재판제도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은 약 100년 전 처음 등장했고 실제로 활성화가 이루어진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입니다. 이에 비해 일반 법원은 더욱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때문에 전통 있는 법원의 재판을 신생 기관인 헌재가 취소한다는 것이 법원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금까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재판 역시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결국 입법을 통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

판 대상에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 Q5.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사건 증가에 따른 심리 기일\* 장기화나 재판 지연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예상되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큰 부작용으로는 ‘소의 남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당사자가 “헌재도 한번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헌재에 청구되는 재판소원 사건이 급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지정 재판부에서 각하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제도 도입 초창기인 만큼 급격한 사건 수 증가는 재판소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지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청구 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리 기일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헌재가 헌법 연구관과 같은 연구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성은 재판이 시작되고 끝나는 전까지의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확정된 재판에 한해서만 다시 한번 헌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헌재가 전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소원을 연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Q5-1. 해당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제도적 노력에 앞서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무조건 헌재에 가서 다시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판소원

도입으로 현재의 사건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심리 기간을 단축해 운영해 나갈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나타난다면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 Q6. 재판소원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제도가 갖는 차별화된 특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도입된 우리나라의 재판소원 제도는 독일의 재판소원 제도와 큰 차이점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독일은 △법제△사법 구조△연방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등이 매우 다른 만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한국형 재판소원의 모습을 갖춰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 Q7. 마지막으로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할 당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규정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고 결국 여러 찬반 논란 끝에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물론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예기치 못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잘된 일이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제도 도입에 따라 수반되는 여러 문제점을 잘 해결하며 재판소원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심리 기일: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증거와 진술 등을 청취하는 등 심리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절차가 이뤄지는 날

강승주 기자 12seungju@hufs.ac.kr

###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 1. 2026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6.04.13(월) ~ 04.30(목)	2026.06.01(월) ~ 06.18(목)
고사장 발표	2026.05.06(수) 15:00	2026.06.24(수) 15:00
면접전형	2026.05.09(토) 10:00 예정	2026.06.27(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6.05.22(금) 15:00	2026.07.10(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6.05.26(화) ~ 05.29(금)	2026.07.13(월) ~ 07.17(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년 출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 라. 학정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 바. Certificate Program(Columbia Univ.), Exchange Program(Univ. of Hawaii at Manoa)
-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Oswego)
- 아. 추가학점 이수트랙 (논문·졸업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521  
(우)02450 서울특별시 중대문구 이문로107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리더십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 1. 2026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6. 4. 6(월) ~ 4. 24(금)	2026. 6. 1(월) ~ 6. 17(수)
고사장 발표	2026. 5. 6(수) 15:00	2026. 6. 24(수) 15:00
면접전형	2026. 5. 9(토) 10:00 예정	2026. 6. 27(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6. 5. 22(금) 15:00	2026. 7. 10(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6. 5. 26(화) ~ 5.29(금)	2026. 7. 13(월) ~ 7. 17(금)

###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의회행정학과(공공정책, 의회행정)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장학금/원우회 임원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입학원서 제출시 장학금/원우회 임원 장학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본 대학 내 학과 간 교차수강 가능) 다. 온라인 병행수업 진행

###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지원자격: 군사 안보 전문 분야(예: 군, 정보기관, 국가 안보 분야 등)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현직 경험을 보유한 자

###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Uwayapply)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서류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합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면접 고사장 및 시간은 추후 공지)

###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 통해 결정됨)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성적우수 장학금/공로 장학금/학비감면





## 외대학보의 내일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며 가장 고뇌하게 되는 순간은 만난 이들이 외대학보를 낫설어할 때이다. 주변에서 무슨 활동을 하냐고 물어 "외대학보 활동한다"라고 답했을 때 돌아오는 생소해지는 반응이나 외대학보 기사를 읽어본 적 없다는 답변은 내 마음을 씩씩하게 만들곤 한다.

학보사의 기사엔 힘이 있다. 기자들과 부장단들이 △편집회의△마감△조판을 거치며 치열하게 고민해 완성한 기사는 학내외 주요 이슈를 전달하고 학내 구성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소중한 공론장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독자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학보사의 기사는 기자 개인의 기록에 머물 수밖에 없다. 기사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 상황은 학내 언론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겨준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외대학보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과 SNS 활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 현재 외대학보는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중심으로 SNS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외대학보 기사의 극히 일부만을 요약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현재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중심의 운영을 넘어 △릴스△속보형 콘텐츠△온라인 단신 보도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내 현안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뉴미디어 시대의 속도감에 발맞추기 위해 학보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콘텐츠를 즉각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 체계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둘째로 외대학보만이 담아낼 수 있는 기획 보도를 확대해야 한다. 학내 언론은 기성 언론이 다루지 않는 학내 사안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단순 전달성 기사보다는 대외보도와 기획 기사의 비중을 높여 학내 현안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는 감시자이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지면 구성의 변화 역시 검토해 볼 만하다. 현재 외대학보 기자들은 직접 작성한 기사로 지면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 기자들은 끊임없는 피드백과 폭넓은 인터뷰 선정을 통해 지면에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외대학보 기자들의 기사만으로는 자칫 특정 집단으로 시각이 한정될 우려가 있다. △교수△직원△학생의 기고 면을 활성화해 다양한 목소리를 지면에 담아낸다면 보다 입체적인 공론장을 형성하고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가 동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운영 여건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외대학보는 데스크와 교정을 담당하는 편집장과 부장기자를 포함해 12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밤샘 마감과 격무에 시달리며 한 호 한 호를 힘겹게 발행해 나가고 있다. 타 대학 학보사가 20명 이상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인력으로는 기존 체제를 지켜내는 것조차 벅찬 실정이다. 따라서 내실 있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 확보와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학보사 기자로서 주어진 임기 중 나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두 학기 남짓이다. 끝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또 어떤 보직을 맡으며 임기를 채워 나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변화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론장으로서 외대학보의 영향력은 점차 희미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남은 임기 동안 학보의 독자층을 넓히고 외대학보가 더 영향력 있는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



강승주 기자

## [책 '싯다르타'를 읽고] 진리는 무엇을 통해 얻어지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로 떠나는가?”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물음은 인간사 속 계속해서 되풀이돼 온 공통의 질문이다. 수많은 예술작품이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으며 종교 역시 같은 노력을 해왔다. ‘싯다르타(Siddhartha)’는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저서로 불교 철학에 기반한 소설이다. 소설 속 주인공 싯다르타는 부족함이 없는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만물의 사랑을 얻었으며 바라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자신과 타인의 삶의 목적에 의구심을 가졌던 그는 자아 속에 있는 근원적인 샘물을 찾아내고자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떠난 싯다르타는 가르침을 얻기 위해 고행자들과 함께 하는 동안 스스로를 비우고자 했지만 이 배움 역시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싯다르타는 자신이 여전히 윤희의 수레바퀴 안에서 맴돌고 있음을 깨닫고 배움의 정점에 선 스승 고타마(Gautama)를 찾아간다. 고타마는 깨달음을 얻은 자였지만 그의 진리는 싯다르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이에 싯다르타는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나아가 탐구를 시작한다. 속세로 회귀한 싯다르타는 카말라(Kamala)를 만나 사랑을 배우고 상인 옆에서 일을 하며 큰 부를 얻는다. 그 시간 동안 싯다르타는 자신이 날 때부터 가졌던 것이 아닌 스스로 얻어낸 사랑과 부를 얻으며 속세에 얽힌 삶을 살게 된다. 윤희의 업보에 휘말린 삶을 살던 어느 날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강가로 떠났다. 소유했던 모든 것을 잃

어버린 순간 언젠가 사라질 생에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은 그 소유에 있지 않는다는 옴(0m)\*의 진리를 깨닫는다. 싯다르타는 자신과 카말라 사이의 아들이 떠나감으로 인해 거듭 고뇌에 빠지지만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삶을 깨닫는다.

이 책은 특정한 가르침을 논하지 않는다. ‘싯다르타’에서 중요한 것은 싯다르타가 발견한 옴의 진리가 아니라 그가 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걸어온 발자취에 있다. 소유한 것을 버리고 얻고 번뇌에 빠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은 아름다와 환희를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소멸하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크고 작은 상처와 그 사이의 기쁨들로 이어진다. 어릴 적 가끔 세상은 인간에게 과하게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 저마다의 고민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볼 땐 생의 의미에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마주친 사소한 배움과 아주 작은 기쁨들이 나를 이 여행 속에 머무르게 한다. 싯다르타의 마지막 미소엔 그가 살아오는 동안 사랑했었던 모든 것들이 담겨있었다. 먼 훗날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나 역시 내 삶의 의미는 충분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나의 진리에 도달했길 희망한다. 길지만 짧은 삶 속에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구불구불한 길들이 진리로 이어지는 체명의 연속이 되길 바란다.

\*옴(0m): 인도 계통의 종교에서 신성시되는 진언이자 주문

이냐연 기자 12nayeon@hufs.ac.kr

##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보고] 비극을 외면하지 않을 용기에 대하여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보고]

## 비극을 외면하지 않을 용기에 대하여

영화『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1980년대 아일랜드(Ireland)를 배경으로 막달레나(Magdalene) 세탁소에서 벌어진 폭력을 드러낸 작품이다. 주인공 빌(Bill)은 석탄을 배달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지켜나간다. 어느날 새벽 수녀원에 석탄을 배달하러 간 그는 창고에 방치된 소녀들과 세탁소에서 혹사당하는 여성들을 목격한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일상은 이전 같지 않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영화는 집단 폭력의 참혹성을 직접적으로 알리려 하기보다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의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빌 역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인물로서 약자의 시선에서 약자를 바라본다. 그의 아내: “개년 우리의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고 사람들과 처지지 않으면 우리 딸들은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거야”라고 말한다. 이는 연민이 곧 위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당시 사회에서 가톨릭교회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이에 맞서는 것은 곧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었기에 약자가 또 다른 약자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도덕과 생존이 충돌하는 상황을 드러낸다.

그러나 빌은 끝내 수녀원의 폭력을 외면하지 못한다. 그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한 가정의 선택으로 시설에 보내지지 않고 보호받으며 자랐다. 누군가의 작은 선택이 한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던 사실을 몸으로 겪은 인물이기에 수녀원에 갇힌 소녀들은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한 때 자신일 수도 있었던 존재로 다가온다. 폭력에 침묵할 것이지 행동할

것인지의 갈등 앞에서 그는 결국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 그의 선택은 거창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유지돼 온 침묵의 구조에서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영화 속의 문제는 특정 국가의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선감학원△영화숙제생원△형제복지원 등의 집단 수용시설의 존재가 뒷늦게 밝혀지며 집단 폭력의 역사가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시설들 또한 보호와 교화를 명분으로 운영됐지만 실제론 개인의 삶과 존엄을 침해하는 공간이었다. 최근 과거사법 개정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대한 보상과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영화가 시사하는 비극이 결코 다른 나라의 과거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점임을 환기한다.

이 영화가 말하는 ‘비극을 외면하지 않을 용기’란 거창한 영웅적 행동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침묵이 당연해진 상황에서 끝내 폭력을 모른 척하지 않는 선택에 기댈 수 있다. 빌이 소녀를 외면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을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자신과 연결된 존재로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비극적인 상황을 보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하지만 이 영화는 ‘공감’이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작은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강수현 기자 12soohyeon@hufs.ac.kr

## 1114호 학보를 읽고

이승원(중국·중외통 22)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 여름이란 궤도에 진입하며

신학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화려했던 봄을 지나 녹음이 우거진 여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요즘이다. 1114호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는 풍경 속에서 그보다 더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미래를 그려나가는 우리대학의 소식들을 알차게 담아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3면에선 우리대학의 인성 교육 교과목 평가 방식 전환을 다루고 있다. 우리대학은 지난해 1학년 필수 교양이었던 인성 교육 과목을 기존 P/NP 방식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도덕적 가치를 상대평가로 줄 세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사에선 평가 방식 전환 이후 △체험 활동 중심 수업 구조의 변경△학생들의 자유로운 성찰 위주△학생 간 경쟁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끼리 서로의 상황에 공감해주며 인성 관련 덕목 함양에 도움을 주겠다던 과목 개설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오늘날의 변화가 어떻게 느껴질 따름이다. 인성 교육은 지식처럼 측정되는 영역이 아닌 만큼 기사에서 언급한 가천대학교와 평택대학교의 사례처럼 P/NP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면에선 우리대학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제59대 총학생회 박동(이하 박동)의 임기 마무리를 다룬다. 박동은 임기 동안 △산전 수강 신청 제도△최우등 졸업 제도△학점 포기제 도입 등 교육 정책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제13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교 운영에 반영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A/B 학점 비율 확대 공약이 임기 내에 이행되지 못하

고 가을 축제가 약소하게 개최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송준우(상경·경제 22) 설캠 부총학생회장이 “학우분들과 했던 약속이나 총학이 하고 싶었던 정책들이 생각보다 온전하게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쉽다”라고 밝힌 것처럼 박동이 남긴 성과와 한계는 모두 차기 총학생회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7면에선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Fixie) 자전거 문제를 조망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42.8%가 사고를 경험하거나 사고 직전의 위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번한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는 △단속 인력 부족△브레이크 제기 및 불법 유통 구조△운전자 안전 인식 부족△픽시 자전거에 대한 제도적 공백 등이 제시됐다. 픽시 자전거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기사에서 제시된 온라인 판매업체 단속 강화와 청소년 대상 안전 교육 확대 등이 신속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안전한 자전거 문화가 정착돼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격주마다 △공정환 보도△새로운 주제△전달력 있는 문장으로 12면의 지면을 채우는 일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학내 대표 언론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외대학보 기자들의 열정에 무한한 찬사를 보낸다. 앞으로도 애독자이자 한 명의 학생으로서 계속 학보를 응원하고자 한다.

## 1114호 학보를 읽고

정지웅(국가전략·헝가리 24)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 성과 너머에 남은 질문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빛이 남아 있던 학교를 둘러싼 산들에도 어느새 푸른 풍경이 번지고 있다. 계절이 바뀌듯 학교 안팎에서도 여러 변화가 피어지는 가운데 1114호를 읽었다. 이번 호는 대학의 △재정△제도△행사가 모두 학생과 시민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3면에선 인성 교육 교과목의 상대평가 전환 문제를 다뤘다. 기사를 읽으며 가장 크게 든 생각은 평가 방식이 강의의 본래 취지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이었다. 물론 실제 평가는 글쓰기나 참여도 등 학교가 정해둔 일정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지만 인성 교육이 자발적 성찰과 체험을 목표로 한다면 상대평가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보다 어떻게 점수를 받을지를 먼저 고민하게 만들 수 있다. P/NP 방식에도 한계는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 전체를 경쟁 구조로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과목의 성격에 맞는 평가 방식이 다시금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다.

4면에선 등록금 인상 협상의 성과와 한계를 다뤘다. 최종 등록금 인상이 2.3%로 낮아진 점은 학생 대표 기구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사를 읽으며 등록금 인상은 단순히 얼마나 올랐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송도캠퍼스 종합부동산세 79억 원이 미납됐고 학교 본부가 이를 교비로 우선 납부했던 대목은 쉽게 지나치기 어려웠다. 물론 이 사례가 등록금 인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재정 운용 과정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 밖에 없었다. 인상률을 낮춘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나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재정 운용 과정과 약속 이행 여부를 꾸준히 설명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8면에선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을 둘러싼 의미와 논란을 다뤘다. 방탄소년단이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였단 점엔 이견이 없으며 광화문 공연 역시 국가 이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익’이나 ‘경제효과’란 말이 행사로 인한 불편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느꼈다. 관객 유입과 소비 증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노동자△소상공인△시민에게 서로 다른 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형 문화행사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까지 함께 살필 때 온전히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호를 읽으며 하나의 제도나 행사를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성과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느꼈다. △문화행사△제도 개혁의 취지△협상의 결과의 파급력 뒤엔 여전히 따져봐야 할 질문들이 남아 있었다. 외대학보가 앞으로도 변화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담과 의문까지 함께 짚어주길 바란다.



국·부장 고정칼럼

### 존재 증명

부재증명이란 말이 있다. 어떤 대상이나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증거의 부재를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형사법에선 피의자가 범죄 현장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현장 부재 증명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존재 증명은 무엇일까. 어쩌면 이 말은 너무도 자명해 존재할 필요조차 없어보인다. 존재 자체가 곧 존재의 증명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그러나 존재의 증명과 존재함으로써 내 가치를 증명한다는 것은 다소 다르게 느껴진다. 존재하는 것만으로서 가치를 증명하기 어려운 시대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인식 속에 자리해야 함이 요구되는 시대다. 이번 1115호는 세상에 존재하며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됐다.

먼저 3면엔 우리대학 서울캠퍼스 제60대 총학생회장단으로 선출된 '선명'의 인터뷰를 담았다. 학생들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포부대로 이들은 △인문관 김밥 및 교수회관 석식의 부활△재정 비전 2030 마스터플랜 수립 요구△전공 강의 개설 수요 기반 제도화 등 우리대학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며 총학생회장단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길 선명을 응원한다.

4면에선 세상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정신적·신체적 질병을 가진 가족을 부양하는 동시에 생계까지 책임지느라 취업과 학업 모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경제적·심리적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지원이 절실함에도 오랫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법률이 지난 3월 시행됐다고 한다. 이제 첫발을 땀 법률에서 나아가 그동안 존재함에도 외면당해 왔던 가족돌봄청년들이 적절한 지원이 보장된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6-7면의 특별기획에선 우리대학의 청결과 학생들의 안전을 묵묵히 책임져 왔던 교내 노동자들의 삶을 조명했다. 외대학보의 기자들이 직접 노동자들의 곁에서 함께 하루를 보내며 그 삶을 지켜보고 체험했다. 노동절과 맞물려 평소 쉽게 지나쳐 왔던 노동자들의 노고를 비추으로써 늘 뒤에서 빛나온 노동의 가치를 돌아보고 이들의 존재가 결코 헛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마지막으로 12면엔 우리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25 외대인문인상을 수상했던 안수훈 연합뉴스TV 대표(이하 안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다. 오랜 학보사 활동을 통해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길이 아닌 언론인의 길을 선택한 안 대표의 경험과 가치관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외대학보를 비롯해 언론인을 꿈꾸는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이번 인터뷰가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

이번 1115호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들의 가치를 느끼고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 나아가 세상에 증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엔 그것이 무엇보다 빛나는 가치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백채린 기자 11chaelin@hufs.ac.kr



### HUFS, 네 글자에 담긴 교육의 의미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서 지식의 생산 및 유통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의 산실인 대학이 기존의 교육 체제와 관행을 답습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을 저버리는 행위와 다름없다. 변화의 파고가 높을수록 교육의 본질은 더욱더 중요해진다. 특히 '교육의 본령은 무엇인가?', '대학은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와 같은 물음은 대학의 존립 자체를 좌우할 만큼 중대해졌다.

앞서 제시한 네 가지 질문은 우리대학이 모색해야 할 교육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표어가 아니라 그간 쌓아온 다양한 정체성을 오늘의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일이다. 이를테면 HUFS라는 네 글자는 다음과 같이 AI시대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H (Human insight): AI시대에도 교육의 본령은 '인간의 통찰력'에 있어야 한다. AI는 방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정보 너머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의 초점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지식을 재구성하는 통찰력에 있어야 한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탐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사유와 판단이다.

U (Ubiquitous AI): 교육 환경은 '유비쿼터스 AI'를 전제로 재편되어야 한다. AI는 특정 학과나 전공에 국한된 도구가 아니라 학습 전반을 떠받치는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 즉, 강의와 과제, 토론과 실습에 이르기까지 AI 활용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일상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우리대학은 AI가 몰고 온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AI를 교육 체제 전반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능동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F (Flexible skills): 교육 내용은 '유연한 역량'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일수록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오늘의 지식이 내일에도 유효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다양한 AI 도구를 유연하게 활용하며, 낯선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해법을 구상하는 힘은 오늘의 대학 교육이 길러야 할 핵심 역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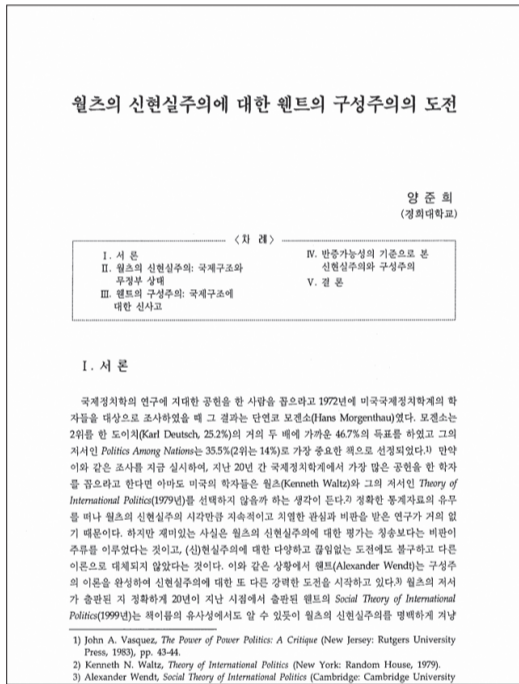
S (Self-directed learning): 교육 방법은 '자기 주도적 학습'에 기초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원리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배움의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대학 교육은 더 이상 일방적인 지식 전달과 암기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교수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평가 방식과 학습 구조 전반을 재편해야 하며, 학습자는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탐구를 확장해 나가는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AI는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학습의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주체는 결국 교수와 학생 자신이다.

위 네 가지 원리는 서로 분절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통찰이라는 철학 위에 유비쿼터스 AI 환경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유연한 역량을 함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AI시대에 우리대학이 지향해야 할 교육 방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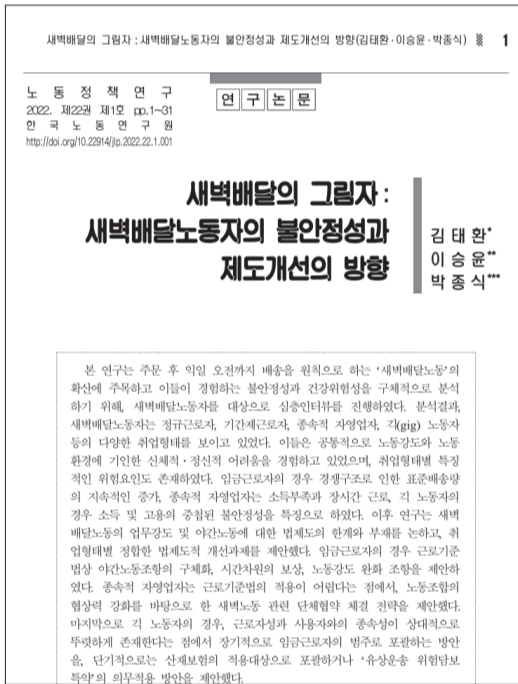
이제 HUFS는 혁신의 비전을 넘어 실천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교명 속에서 길어 올린 새로운 의미를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해 보자.

·이상빈(영어통번역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 기자들의 추천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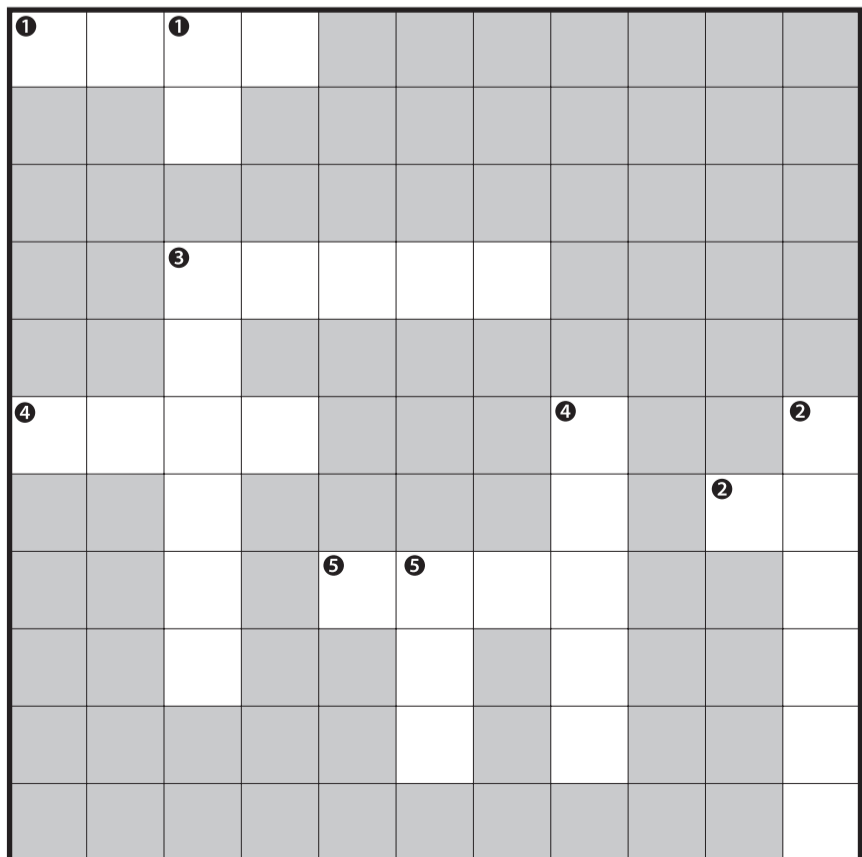


상당한 이론들을 동일한 기준 하에 비교해 국제정치 이론의 과학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려 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증가와 맞물려 새벽 배송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새벽 배송은 소비자의 편리성이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배달원들에 대한 낮은 처우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 논문은 새벽 배송의 그림자와 대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새벽 배송 증가 흐름 속 △고용주△배달원△소비자 모두 읽어보고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이다.

### 십자말풀이



- 가로**
1. "지난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개정 및 동조 제3항 신설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0000이 시행됐다. (9면 참조)
  2. 이에 따라 글꼴에는 경비와 미화물 비롯해 00과 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캠퍼스를 관리하는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7면 참조)
  3. 대한민국 00000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 D 씨는 가족돌봄청년 선별 기준이 불확실해 행정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4면 참조)
  4.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사건 증가에 따른 0000 장기화나 재판 지연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 우려도 제기됩니다. (9면 참조)
  5.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 0000 삼성전자 지부는 "최근 4개월 동안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인원만 200 명이 넘는다"라며 △성과급 산정 방식 투명화△성과급 상한제 폐지△영양이익의 15% 성과급 활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8면 참조)

- 세로**
1.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의 00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체포 장면으로 시작된다. (5면 참조)
  2. '000000이란 화재 발생 지점을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층을 기준으로 2~3개 층만 화재 경보가 울리는 소방 안전 방식이다. (2면 참조)
  3. 교내에는 000000이나 사복 경찰이 상주하고 있었고 학생들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했습니다. (12면 참조)
  4. 우리대학 풀란드학과는 00000과 학생들의 △문화△언어△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과 공연예술을 연계한 문화교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1면 참조)
  5. 남부 기사자와 000 및 학생회실이 모여있는 국제화사에는 총 8명의 노동자가 근무한다. (6면 참조)

※피출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10jaewoo@hufs.ac.kr

##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강기훈  
 편집인 겸 주간 이상빈  
 편집장 현재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http://www.hufspress.net)

바그다드 특파원에서 연합뉴스TV 수장까지,  
외대언론인상 수상자

# 안수훈

## 연합뉴스TV 대표를 만나다

안수훈(사회·행정 82) 연합뉴스 대표는 2025 외대언론인상을 수상한 인물로 지난 2004년 이라크 전쟁 당시 바그다드(Baghdad) 특파원을 지낸 전문 언론인이다. △멕시코만 원유 유출△아이티 대지진△쿠바 관타나모(Guantanamo) 수용소 취재 등 외신 보도의 최전선을 거쳐 현재 연합뉴스TV 수장에 이르기까지 그가 쌓아온 현장 경험은 독보적이다. 현장 기자와 경영인을 거쳐 온 그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이 지켜야 할 본질과 전문성을 갖춘 안수훈 대표를 만나보자.



**Q1. 우리대학 행정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 및 행정 등 사회과학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큰 계기가 돼 우리대학 행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학과에 진학하면 국가고시와 같은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입학하진 않았습다.

**Q2. 우리대학 재학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는 행정학과 학생이었지만 대학 시절 학보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수업이나 학과 활동보다 취재와 기사 작성에 집중했고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학과보다는 학보 중심으로 형성됐습니다. 3년간 학보사에 몸 담았고 편집장도 역임하며 전공이 행정학이 아니라 학보사 활동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학보사 활동에 몰입했습니다.

**Q2-1. 재학시절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경험은 무엇인가요?**

재학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언론과 학생 사회가 강한 통제를 받는 현실을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우리대학을 다녔던 시기는 지난 1980년대 초반의 군사정권 시기였는데 당시 대학가의 분위기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교내에는 정보기관 요원이나 사복 경찰이 상주하고 있었고 학생들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했습니다. 시위가 발생하면 곧바로 진압이 이뤄졌고 주동 학생들이 연행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학보사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내 언론 활동에 있어 제약이 많았으며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 이미 인쇄를 마친 신문이여도 배포 금지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겪으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자연스럽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Q3. 언론인의 길을 선택하신 계기가 무엇인**

**가요?**

학보 활동을 하면서 기자라는 직업이 제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정보를 전달하는 학보사 활동을 통해 기자의 역할에 매력을 느껴 언론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당시에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언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졸업 이후 자연스럽게 언론사 기자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Q4. 처음 언론인을 꿈꿨을 때 희망했던 부서가 있나요?**

처음 언론인을 꿈꿨을 때 특정 부서를 희망하기보다는 기자로서 기본기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신입 기자들이 사회부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기에 저 역시 사회부에서 사건 취재를 중심으로 경험을 쌓았습니다. 사회 전반에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문제를 폭넓게 취재하고 보도하며 기자로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후 △국제부 △법조부△정치부 까지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Q4-1. 폭넓은 취재를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라크 전쟁 당시 바그다드에서 중군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전쟁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하면서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인 피랍 사건을 현장에서 보도했던 경험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히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건 관련인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취재했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미국 애틀랜타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미국 남부 지역을 취재했던 경험도 의미 있게 남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 남부 사회의 역사나 인종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직접 취재하고 전달할 수 있었던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Q5. 이라크 바그다드와 쿠바 관타나모 같은 특수 지역을 취재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낀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어려움은 취재 환경과 보도의 지속성이었습니다. 분쟁 지역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긴장 상태에서 취재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 언론은 분쟁 지역 전문 기자를 장기적으로 운영해 보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내 언론은 단기 파견 중심의 취재가 많아 현지 상황을 심층적으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Q6.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외신을 요약해주는 시대입니다. 언어 전공자란 경쟁력마저 기술로 대체될 수 있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 기자만이 가진 고유한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은 정보를 빠르게 정리하고 기사 작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담긴 맥락과 사회적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다룰지 판단하는 과정에는 인간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며 사람들의 감정과 분위기를 읽어내는 부분 역시 인공지능이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자는 인공지능을 단순히 경계하기보다 취재와 분석을 돕는 도구로 활용하면서도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스스로 가져야 합니다.

**Q7. 언론 보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균형과 공정성입니다. 과거에는 비판적인 기사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로 여겨지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건을 보도할 때 한쪽 입장만을 강조하고 사건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을 충

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기관 발표 중심의 보도는 이후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균형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8. 앞으로의 계획 또는 목표가 무엇인가요?**

앞으로는 언론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 나은 취재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현재는 기자로서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는 역할보다는 언론사의 대표이자 경영인으로서 조직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변화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도 언론이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지금의 제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조직 운영△언론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취재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Q9. 마지막으로 언론인을 꿈꾸는 우리대학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만의 시각과 역량을 키우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언론계에 진입할 수 있는 방식이 훨씬 다양해진 만큼 특정 공채 시험만 준비하기보다 다양한 매체와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디지털 플랫폼이나 독립 매체 등 언론 활동의 영역도 넓어졌기 때문에 학생들도 기여할 수 있는 참여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우리대학 학생들은 외국어라는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외신 분야 등의 글로벌 영역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매체 기술 변화에 대한 이해도 함께 갖춘다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수훈 기자 12soohyeon@hufs.ac.kr

# SINCE 1965

## NH농협생명

60년을 넘어 한결같이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밝혀 온 NH농협생명.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의 인생을 비추겠습니다.

### NH농협생명이 든든한 빛이 되겠습니다